# 불교, 미얀마 고전 문학 원천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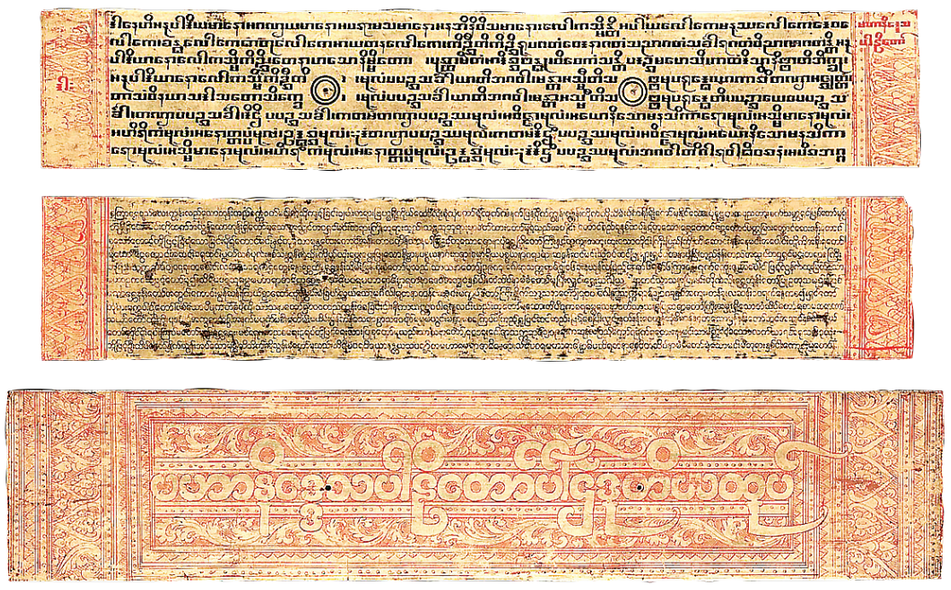
## ⑮ 미얀마문학과 불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찰나의 순간마다 수많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낀다. 자신의 체험과 사유 그리고 감정을 오롯이 소설 · 시 · 수필 · 희곡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문학으로 승화시킨다. '책으로 한 나라의 상당 부분을 다닐 수 있다' 고 유명한 영국의 문학가인 앤드루랭은 이야기했다. 문학은 한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을뿐더러 시대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교문학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를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불교문학은 신라시대의 향가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월명사 스님의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삶의 무상함이 불교적 세계관으로 담겨있다. 신라시대의 다른 불교 향가로는 〈도솔가〉〈원왕생가〉〈도천수관음가〉 등이 있다. 고려 시대 향가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는 〈보현십원가〉는 백성들에 의해 많이 불렸었고 〈삼국유사〉에는 다양한 불교설화가 전해진다. 그 외에도 선사들이 깨달음의 기쁨을 선적 언어로 표현한 오도송과 수필 등이 전해진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의 불교문학은 창작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법정 스님의 〈무소유〉 최인호 작가의 〈길 없는 길〉과 같은 작품은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21세기인 현재에도 불심(佛心)이 남다른 미얀마의 문학은 어떨까? 미얀마 문학은 크게 19세기 이전과 19세기 이후로 나뉜다. 미얀마는 19세기가 지난 이후에 불교적인 세계관 문학을 벗어나 다른 형식의 문학 장르를 받아들였다. 불교문학의 중심이자 시작은 미얀마 상좌부 불교의 융성함을 알린 바간(Bagan) 이었다. 바간 시대의 불교문학은 주로 짜웃싸(Kyokcā, 비문)에 기록되었는데 창작층과 관련이 있다. 바간 시대의 불교문학의 주요 창작층은 왕족과 승가였다. 주로 비문 내용은 왕족의 불심 · 공덕에 관한 찬탄 · 부처님을 찬미하는 내용과 왕들이 불교교리에 의해 정한 법이 짜웃싸에 기록되어 있다.

미얀마 짜웃싸 중 가장 가치가 있는 짜웃싸는 라자꾸마라 짜웃싸(Razakuma Kyokcā)이다. 네 기둥에 한 기둥 마다 빨리어(Pali), 몬어(Mon), 미얀마어(Myanmar), 뿌어(Pyu)로 서술되어 있다. 라자꾸마라는 바간 왕조의 짠싯타 왕의 아들이었지만 직접적으로 왕위 승계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효심 가득한 마음을 부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작성했다. 미얀마 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왕족들의 연대기를 기록한 역사서에 불교적 내용이 가미가 되었고 또 다른 형태의 미얀마 문학으로 발전했다. 미얀마의 시문학은 부처님의 전생담을 기록한 자타카(Jātaka)를 기반으로 창작되었다. 자타카에서 영감을 얻어 지은 시의 형식을 뽀(Pyo)라고 한다.



불교에 바탕을 둔 미얀마 문학작품 상당수가 비문에 새겨져 있다.



라자꾸마라 비문1



라자꾸마라 비문2

> 바간시대, 불교문학 전성기
> 주요창작층은 왕족과 승가
> 미얀마 전역 불교설화 분포
> 지금까지도 구전으로 계승



싸단 동굴(Sadan Cave)의 모습.

미얀마 파안(Hpa An)에 갔을 때 친구 아버지께서 해준 싸단 동굴의 전설이 기억난다. 이 동굴은 부처님 전생담과 관련이 있다. '싸단 동굴(Sadan Cave)' 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코끼리였을 때 죽기 전 마지막으로 지냈던 동굴이다.

'마을의 왕과 왕비는 동굴 속에 사는 코끼리 왕의 상아를 갖고 싶어 했다. 상아의 욕심이 난 왕과 왕비는 코끼리를 잡는 사냥꾼을 고용하였다. 사냥꾼은 코끼리를 잡기 위해 화살을 쏘았고, 코끼리는 자신을 지키는 친위대가 있었지만 사냥꾼의 화살에 기꺼이 맞아줬다. 상아를 뽑기 위해 사냥꾼은 안간힘을 썼지만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될 코끼리여서 쉽게 상아가 뽑히지 않았다. 그때 코끼리가 사냥꾼에게 "왕의 부인이 갖고 싶다고 하면 내가 나의 상아를 주겠다"라는 말을 남기며 사냥꾼에게 상아를 내주고 죽었다.'

코끼리 왕의 전설이 내려오는 이 동굴에는 현재 불상과 탑이 건립되어 코끼리 왕의 전설을 기리고 있다. 부처님 전생담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가 미얀마에 살아 숨 쉬고 있다. 그 중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유명한 미얀마 전래동화가 있다. 두 이야기 모두 부처님의 전생담에 기반을 하고 있다. 한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전생에서 지혜롭지 못했던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이야기가 전해진다.

전생에서 지혜롭지 못했던 이야기는 '위딴디야 민지(Waitandayar Mingyi, 위딴디야 왕)'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나라의 왕이었던 위딴디야는 숲에서 명상을 하며 남은 생을 지내고 싶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위딴디야 왕에게는 부인과 딸과 아들이 있었다. 가족들은 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싶어서 왕과 함께 산속으로 따라 들어갔다. 부인과 자식들은 숲속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집에 두고 부인은 산으로 먹을 음식을 찾으러 나간 사이에 위딴디야 왕에게 한 남성이 찾아왔다. 그 남자는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 보시를 해달라고 했다. 위딴디야 왕은 줄 것이 없어 자기의 자식을 내주었다. 남자는 위딴디야 왕의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학대를 하며 앵벌이를 시켰다. 이를 본 위딴디야의 아버지는 자신들의 손주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아이들을 데려갔던 남자는 죗값으로 급하게 밥을 먹다가 사망하게 되었다.'

위딴디야 왕의 지혜롭지 못했던 보시이야기를 통해 미얀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보시는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보시해야 한다' 며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지혜로웠던 시기의 마허다따(Mahawdatar) 이야기다.

'어느 마을의 마허다따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지혜롭고 총명해서 다음 생에는 부처님으로 될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다. 마을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서로가 물건을 갖고 싸우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마허다따가 지혜롭게 해결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줬다.'

마허다따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지혜롭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해결해 줘야 한다는 교훈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미얀마 문학은 영국 식민지 시기의 지배를 받았을 때부터 다른 주제를 가지고 문학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부처님의 전생담, 부처님의 교리, 파고다 건립 이유,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공경 등 불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소설, 시, 전설, 동화 등이 창작되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전래동화, 학교에서 배운 문학작품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서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집에서 듣고, 여행을 가며 전설 속의 유적지를 실제로 보며 자란 미얀마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떨까? 미얀마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미얀마 불교 문학을 읽고 한 번 떠나보자. 상상하던 그 이상의 불국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양곤대 박사과정〉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5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